

# 〈허생전〉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적용의 문제\*

김수중\*\*

|| 차례 ||

1. 서론
2. 〈허생전〉에 나타난 시대정신
  - 1) 시공간을 초월한 작가의 경험적 인식
  - 2)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현실비판정신
3. 〈허생전〉의 현대적 적용
  - 1) 인재 육성과 등용
  - 2)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 3)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4. 결론

## 【국문초록】

〈허생전〉은 조선 사회가 근대적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에 그 시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밝혀놓은 회색의 걸작이다. 작자인 연암 박지원은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한 세기 이상 앞당겨 사회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삼국과 가상의 세계까지를 포괄하여 미래적 전망의 폭을 확대시켜 놓았다. 그 드넓은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요소의 핵심이 조선후기시대를 살아간 진보적 지식인들의 고뇌와 갈망이 담긴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허생전〉의 가치는 더욱 고양된다 할 수 있다.

연암은 청나라 황제가 머물던 열하의 피서산장을 다녀오던 길에 〈허생전〉을 처음으로 구연하였다. 청나라의 실체가 이토록 확연한데, 우리는 형식적인 복벌론을 입에 올리며 공리공론만 입삼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동기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인재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기르고 실용주의를 앞세워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활발한 교역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야기 속에 담았다. 이는 연암을 포함한 실학자들이 추구하던 공통된 시대정신이었다. 연암은 이것을 소설 형식으로 완성하여 자신의 기행문집인 『열하일기』에 수록했던 것이다.

이 <허생전>의 진보적 시대정신은 당대의 현실을 뛰어넘어 이백여 년이 지난 현대에도 적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인재의 육성과 등용이다. 중국이 우리를 두려워했던 까닭은 인적자원의 풍성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봉당정치와 인재 등용 제도의 폐해로 인해 조성기, 유형원 같은 인물들이 초야에 묻히고 말았던 것처럼, 현대에도 학연이나 지연에 얽힌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권력에 맹종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사조를 수용할 능력을 갖춘 인재의 등용 여부가 올바른 미래사회 구현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로,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허생전>은 문명과 행복이 배치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사회적 제도의 모순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올 문제점을 걱정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식인의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특히 이상향 건설의 시도를 보여준 것은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강조를 염두에 둔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문명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지도층의 역할을 일깨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실현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이다. <허생전>은 조선을 침략한 세력인 일본과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역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우리에게 치욕을 안겨 주었던 청나라에도 유학을 시키고 상업적 교류를 넓히도록 권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은 일종의 공동체로 결속되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는 예언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현대에 들어 삼국은 각각 다른 정치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지속적인 정상회담을 비롯,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허생전>의 가치와 미래적 성격은 더욱 높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허생전, 열하일기, 시대정신, 인재 등용, 책임의식, 동아시아 공동체

## 1. 서론

<허생전>은 근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던 시기에 그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과 서민대중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다. 18세기에 무르익은 서양의 계몽주의가 불평등과 불합리를 타파하고 이성 중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을 때, 같은 시대의 청나라는 아직 사상적 자율화를 이루지 못한 채 인구 증가에 따른 상업 규모 확장에만 힘을 쏟고 있었다. 중국을 통해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조선의 입장은 그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식을 놓고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 등장한 실학자요 문인인 燕巖 朴趾源(1737~1805)이 <허생전>을 창작하여 시대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법을 남긴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1780년, 연암은 청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 이야기를 구연한 뒤 소설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열하일기』에 실었다. 『열하일기』는 기행록 이지 소설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허생전>을 중국 땅에서 구연하고 기행문집에 수록한 것은 특별한 까닭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나라 건륭제는 해마다 여름이면 수도인 燕京을 떠나 북방의 熱河 피서산장에 머물렀는데, 연암은 그곳을 방문하고 난 직후에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허생전>의 원작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와 국제적 질서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놓았다. 그는 이 내용이 허구적 소설로 인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생한 사실적 기행이라는 차원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생전>의 시대적 배경은 연암이 살고 있던 18세기 말엽이 아니다. 실존인물로서 북벌론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李滄(1602~1674)이 등장하여 시사 문제를 논했다는 대목을 보면, 이 작품은 17세기 중엽의 조선과 동아시아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연암의 시대정신은

현실보다 백여 년을 앞서 사회 변화를 위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청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의 분노가 극도에 달해 있던 때에도 북벌의 허구성과 교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연암은 현실의 문제를 말하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자리로 독자들을 인도해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이 <허생전>을 쓰고 나서 이백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작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대적 시대정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 적용방식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거를 소설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당대의 현실에 적용한 연암이었던지라 그 속에는 또한 미래를 지향하는 통찰력이 함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허생전> 연구가 당시의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다면, 이 논문은 그 시대정신을 현대에 적용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전개 순서는 먼저 <허생전>에 나타난 시대정신의 특징을 작가와 실학자 중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것들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문제들을 세 가지 요소로 압축하여 고찰하려 한다.

## 2. <허생전>에 나타난 시대정신

### 1) 시공간을 초월한 작가의 경험적 인식

『열하일기』에 의하면, 박지원이 ‘허생’이라는 인물에 관해 언급한 것은 열하를 떠나 귀로에 오른 후 玉匣이라는 곳에 머물며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였다. “여러 비장들과 침상을 나란히 하고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하였다”<sup>1)</sup>라고 한 것을 보면 그날 밤은 일행들이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누린 한가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연암을 포함한 사신단 일행은 만리장성 너

며 북방의 열하까지 시간에 쫓기며 달려갔었고, 그곳에서 건륭제를 알현하는 긴장된 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이다. 여유 있는 배경만큼이나 옥갑 이야기의 서막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비장들은 청나라의 문물이나 황제에 관한 소재를 외면한 채 옛날 역관들의 치부담으로 일관한다. 이때 연암이 꺼낸 이야기는 여러 비장들의 그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허생이라는 주인공의 등장은 처음에는 한가로운 배경에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이야기의 진행에 따라 점차 긴장감을 자아낸다. 그것은 단순한 치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만한 경제관과 작가의 시대정신이 투영된 빼어난 문학작품이었다. 연암이 허생이라는 주인공의 傳을 쓰겠다는 의도를 보였으므로,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문학사에서 <許生傳>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암이 <허생전>을 그 시점에서 거론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44세에 이르도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자신이 원했던 연행에 참가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살펴보고 특히 건륭제의 통치 방식을 깨달은 직후에 떠오른 이야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연암은 청나라에 가면서 내심 그들의 허실을 탐지하여 국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약한 기록이 『열하일기』이므로 이 책은 諜報記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sup>2)</sup> 일단 청나라의 핵심을 파악하고 난 연암이 자신의 對淸觀을 여기서 밝히고 싶었을 것이고, 문인으로서 그것을 정치적 풍자소설 방식으로 기록해 놓은 글이 곧 <허생전>이라고 할 수 있다.

1) 與諸裨連牀夜語. 『熱河日記』 <玉匣夜話>.

2)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2. p.287.

참보기적 성격이 집약되어 있다는 증거로 <審勢篇>을 들 수 있으며, 작자의 이런 활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北伐을 전제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워낙 언론이 통제되고 필화사건이 빈발하던 시대의 일인지라 연암은 이 소설에 이색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려 했던 것 같다. 그것은 <허생전>의 원작이 자기가 아니라 尹映이라는 노인이며, 자신의 나이 스무 살이던 때 봉원사라는 절에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한 점이다.<sup>3)</sup> 『열하일기』 속에서 <허생전>과 쌍벽을 이루는 소설 <호질>도 연경을 향해 가던 연암이 玉田縣이란 곳의 한 가게에서 발견한 글을 베껴 자의적인 가필을 했다고 한 일과 연결되는 점이 없지 않다.<sup>4)</sup> 두 작품 모두 사대부의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글들을 그대로 발표하기에는 마음의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암의 소설을 모두 자기보호를 위한 위장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없고, <허생전>의 경우 이 내용과 유사한 야담들의 전승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연암의 온전한 창작이라고 주장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sup>5)</sup> 아마도 연암이 허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던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십 년이 넘도록 가슴 속에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구전담이 열하의 경험을 통해 드디어 시대정신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연암에게 있어 가장 생생한 열하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열하에서 펼쳐졌던 독특하고 묘한 문화체험이나 학자들과의 만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착안했다. 그것은 왜 청나라 황제가 해마다 연경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피서산장까지 가서 정무를 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

3) 연암이 尹映을 20세에 奉元寺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은 <進德齋夜話>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본들에 後識로 붙어있는 기록에서 발견된다. 18년 뒤에 다시 만난 윤영은 연암에게 허생을 위해 전을 짓겠다고 하더니 어찌 되었는가 물었다고 되어 있다.

4) 『熱河日記』 <關內程史>.

5)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p.45.

<허생전>과 유사한 ‘許生故事’로 지금까지 밝혀진 작품만도 예닐곱 편이 넘으며, 하나의 ‘이야기’ 또는 ‘형식’이 전변되는 과정은 어느 한 개인의 천재성에 기댈 수 없을 정도로 창작적인 면모를 무색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문이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그는 열하가 몽고와 가까운 변방으로서 황제가 직접 국경을 방비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로소 의문을 풀게 되었다. 열하로의 이동은 청나라가 몽고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이민족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다. 황제가 친히 국경을 지키며 중국 중심의 국제적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속셈이 그 속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티벳 불교의 상징적 인물인 반선라마를 지나칠 정도로 예우하는 것도 서쪽 멀리 있는 티벳족이 청나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연암은 반선라마를 금각 속에 갇힌 정치인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하였다.<sup>6)</sup> 그렇다면 과연 청나라에게 있어 조선은 무엇이란 말인가? 연암의 생각은 열하를 벗어나면서 시간적으로 120여 년 전, 공간적으로 동아시아 일대로 나아가는 초월적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상상의 시간을 1세기 이상 앞당기며 그 시대의 민족정신으로 각인되었던 북벌론을 상기시킨다. 1649년에 즉위한 효종 대왕은 병자호란의 수치를 안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인물이었다. 대왕은 민족의 한을 씻고자 북벌계획을 수립하고 이완, 송시열 등을 발탁하였으나 십 년 만에 병사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그 후에 북벌론은 집권세력들이 명분으로만 사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연암은 청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 북벌의 대상인물과 장소를 생생히 경험한 직후, 지금도 명분만 내세우며 북벌론을 입에 올리는 세력을 비판하면서 그 시대에 적합한 북벌책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이 정책의 주역인 이완 대장이 활동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아울러 작품의 공간도 매우 광대하게 뻗어나간다. <허생전>의 공간은

---

6) 『熱河日記』 <黃教問答>.

조선 땅의 서울에서부터 제주도와 변산반도 등 곳곳을 거쳐 중국대륙의 남단인 지금의 마카오 가까이에 이르고, 1571년에 개항한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서 주인공이 직접 무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중·일 삼국과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가상의 섬에 이상세계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한계를 느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닷길을 따라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고 싶었던 조선인들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암의 시대정신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여 청나라를 압도할 만큼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진정한 북벌을 이룰 수 있다는 결론으로 압축된다. 청나라의 심장이었던 열하 방문을 마치고 연암은 이십여 년 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캐릭터를 시대정신의 구현자로 내세워 <허생전>을 완성했던 것이다.

## 2)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현실비판정신

<허생전>의 주인공이 당시의 사회와 정세를 보는 태도는 작가 연암의 현실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허생이라는 인물은 연암 박지원의 자기투영적 인물상이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연암은 소설적 기법을 심분 발휘하여 주인공을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객관적 상징인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 주인공 허생은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안일하게 글만 읽고 앉아 있는 선비들이나, 개혁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입만 열면 북벌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한데 묶어 비판하는 실학자로 등장한다. 인습적 제도들의 문제

7) 줄저,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pp.153~180.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 자기투영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서전적 개념과는 다른 각도에서 작가의 사상적 포부를 실현시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허생전>의 주인공은 실학을 숭상한 연암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포부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점을 비판하고 장래에 대한 실용적 구상을 펼치기 시작하던 실학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호쾌한 인물의 출현이었다.

실학자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의 미래가 경제의 운용 여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경세제민사상을 실천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었다. 국내외적으로 무역과 유통이 취약한 현실을 걱정하며, 개인의 비정상적인 상행위로 인해 국가경제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연암을 포함한 진보적 실학자들의 공통된 정신이었다. <허생전>의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는 상공업 진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식인들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웅변과도 같았다.

조선은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다니지 못하므로 온갖 물건이 제 바닥에서 나서 제 바닥에서 찾아지게 마련이오.<sup>8)</sup>

육지에서 나는 물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통거리로 사 두든지,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재화 중에 한 가지만 통거리로 사 두든지, 만 가지 약재 중에 한 가지만 통거리로 사 둔다면 한 가지 물화가 꼬리를 감추고 백 명의 장사치들은 손속히 말라들 것이니, 이는 백성을 해치는 장사 방법으로 뒷날 세상이라도 일 맡은 자가 이런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쪼먹을 것이오.<sup>9)</sup>

상업이 활기를 찾으려면 길을 닦고 교통수단을 개선해야 하며, 나아가 경제활동을 나라 밖으로까지 넓혀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과 무역을 이루어 폭넓은 교류를 펼쳐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을 역설하는 한편, 아직 물류의 유통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을 개탄한다.

---

8) 朝鮮 舟不通外國 車不行域中 故百物生于其中 消于其中. 『熱河日記』 <玉匣夜話>.

9) 陸之產萬 潛停其一 水之族萬 潛停其一 醫之材萬 潛停其一 一貨潛藏百賈涸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 必病其國. 『熱河日記』 <玉匣夜話>.

이런 상황에서는 유용한 물건 하나를 몰래 사재기하면 그것이 혼란을 부르고 결국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도둑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인공이 자기가 사용했던 사재기 방식을 스스로의 입을 통해 비판하도록 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서 무역활동을 벌여 거기서 번 백만 냥 가운데 절반을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일이 있었다. 조선의 경제적 현실은 화폐의 과도한 유입이 생길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결과로 해석된다. 16세기 말엽에 포르투갈 상선에 의해 개항한 나가사키가 동아시아 경제무역의 한 축이 되어 있다는 점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대목이다. 조선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본이지만 주인공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나라의 항구를 드나들면서 무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태도를 확인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허생전>에 보이는 정치적 시국관은 위정자의 무능과 북벌정책의 허구성을 연결시켜 매우 강렬한 비판의 여지를 남겨준다. 주인공은 북벌을 추진하던 어영대장 이완을 만나 이른바 時事三策을 제시한다. 첫째는, 와룡 선생 같은 인물을 추천할 테니 임금이 삼고초려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손쉬운 일인 것 같지만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였다. 봉당정치의 폐해로 인해 진정 국가의 앞날과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인재들은 설 곳이 없어졌다.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고 있었으므로 임금이 직접 나서서 당파를 초월하여 등용하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선비의 사례로서 趙聖期和 柳馨遠 같은 인물들을 언급하였다.<sup>10)</sup> 그들은 탁월한 능력

10) 허생이 이완을 만나기 전, 변 씨와의 대화 속에 두 인물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완(1602~1674)에 비해 조성기(1638~1689)와 유형원(1622~1673)은 그보다 이삼십 년 후에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기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시

을 지녔음에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며, 화자 허생의 분신인 연암도 이 작품을 쓸 당시에 백면서생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둘째는, 명나라 유민들에게 왕실의 딸들을 시집보내고 또 훈척과 권신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조정의 권력자들은 崇明을 말하고 이미 멸망한 명나라의 은혜와 문화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임진왜란 때 파병되어 온 명나라 군인들의 후손으로서 돌아갈 곳이 없게 된 유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키려 한다면 왕실이 먼저 나서야 하며, 권신들도 형식적인 숭명 태도를 바꾸어 자기 권익을 그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비열하게 자기 몫 지키기에 급급한 지도층의 맹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명나라가 세계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44년이므로 이미 명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과거의 국가일 뿐이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신의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경제활동의 근본이 신의에 있음을 보여준 실학자들이 국가 경영에서의 신의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사대부들의 자녀들에게 변발을 시키고 호복을 입혀 청나라 과거에 응시하게 하며 장사꾼들은 장사를 하여 저들의 허실을 탐지해 천하를 도모하라 하였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하여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므로 그 나라에 유학도 하고 장사도 하며 그들을 알아야 진정한 북벌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였다. 청을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왕조와 청의 문물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었고 청의 문물은 中華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었다.<sup>11)</sup> 이는 실학사상

---

기의 문제보다도 연암이 17세기의 대표적인 은일지사로서 그 두 사람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11) 최소자, 「18세기말 동서양 지식인의 중국인식비교」, 『동양사학연구』 59, 동양사학회,

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의 북벌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방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방안들의 어느 한 부분도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제안은 권력형 사대부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하고 말았다. 현실에서 소외된 실학자는 주인공의 입을 빌려 이런 탄식과 분노를 드러낸다.

그래! 소위 사대부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오랑캐 땅에 나서 자칭 사대부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sup>12)</sup>

무능한 사대부들을 향한 실학자의 울분이 극도에 달해 그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칼을 찾기에 이른다. 북벌론의 상징적인 인물로부터 연암 당시의 권력층까지 무능하고 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이다.<sup>13)</sup> 시사삼책을 시국관으로 제시했던 실학자는 실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비록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현실의 정치 사회를 비판하면서 이상적 미래를 추구하려는 시대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1997, p.9.

12) 所謂士大夫 是何等也 產於羶貊之地 自稱曰士大夫 豈非駭乎. 『熱河日記』 <玉匣夜話>.

13) 연암이 <허생전>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칼을 휘두르기까지 하도록 했던 것은, 연암 당시에 부패한 권력을 쥐고 혼든 洪國榮을 대상으로 한 울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영동, 『연암 박지원의 소설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203. 실제로 연암은 흥국영으로부터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1778년에 황해도 연암협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박종채, 김윤조 역주, 『過庭錄』, 태학사, 1997, pp.55~56 참고.

### 3. <허생전>의 현대적 적용

#### 1) 인재 육성과 등용

연암이 <허생전>의 배경을 백이십여 년 앞으로 끌어당겨 놓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결부시켜 현실을 비판한 것은 새로운 역사적 질서를 예고하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제 <허생전>이 창작되고 난 후 이 백여 년이 지난 이때, 과연 그 명작이 어떤 미래적 시대정신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허생전>은 청나라 황제가 거쳐하는 열하를 체험한 직후에 구연된 작품이라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청나라가 몽고나 서역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군사적인 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조선에게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연암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는 열하에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특히 밤을 지새우며 학문과 사상, 그리고 천문에 이르기까지 필담을 나눈 鶴汀 王民皐에게 조선의 인물과 학문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 주었다.<sup>14)</sup> 山東都事 郝成까지 합세한 자리에서는 조선의 자랑과 미덕을 열거하며 우리는 유학을 숭상하는 학자들로부터 정절 깊은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예지와 의리를 숭상한다는 사실을 알렸다.<sup>15)</sup> 조선의 힘은 곧 인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인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연암은 결국 중국 땅의 중심 자리에서 조선의 현자인 허생이라는 선비 이야기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허생전>이 시종 역점을 두어 미래적 시대정신으로 지향하고 있는 내용은 인재의 발굴과 등용이다. 봉당정치의 폐해와 과거제도의 타락에 의해 등용의 길이 막혀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들을 임금이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14) 『熱河日記』 <鶴汀筆談>.

15)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작가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지난 세기에 반드시 등용되었어야 했을 인재로 두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예로부터 자취 없이 숨어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꼽아 보면, 어찌 능히 적국에 사신으로 갈 만한 인물로 누더기 속에서 늙어 죽은 졸수재 조성기 같은 인물에 한할 것이며, 전쟁이 나면 군량을 이어 델 만한 인물로 바다 구석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죽은 반계거사 유형원 같은 이에 그치겠소?<sup>16)</sup>

졸수재 조성기는 고소설 <창선감의록>의 작자로서, 당대의 대문호 서포 김만중과 라이벌이 될 만한 인물로 손꼽힌다.<sup>17)</sup> 하지만 그는 생전에 주목을 받지 못했고 관직에도 나아간 적이 없다. 졸수재가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질병이 원인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왕성한 집필 의욕이나 사고력의 깊이를 감안할 때 반드시 등용되었어야 할 인재라는 것이다. 그가 사물의 실질을 중시하는 실용적 입장을 선도한 것을 보면 능히 적군까지도 설복시킬 만한 능력의 소유자인데도 골방 서생으로 삶을 마친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거론된 인물은 반계 유형원이다. 그는 실학의 토대를 놓은 학자로서 연암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반계가 정립한 실학관은 정전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바, 그 요체는 토지제도가 바르게 실시 되면 천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천리를 잃게 되면 인사에 해가 온다는 것이다.<sup>18)</sup> 전쟁 속에서 군량까지도 델 수 있다는 표현은 토지와 사람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데서 나온 말이라 하겠다.

16) 古來沈冥者何限 趙聖期(拙修齋) 可使敵國 而老死布褐 柳馨遠(磻溪居士) 足繼軍食 而逍遙海曲. 『熱河日記』 <玉匣夜話>.

17) 정출현 외 3인,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한겨레, 2006, p.171.

18) 이우성, 『초기 실학과 성리학과의 관계』, 『동방학지』 1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p.19.

연암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인재로서 추천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洪大容, 李德懋, 朴齊家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담헌 홍대용은 영주군수를 지내는 등 지방 외직에 잠시 기용된 적은 있지만 그의 탁월한 경제 과학 이론을 사회에 펼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 또한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서얼 출신이었던 이덕무와 박제가는 규장각 검서관 같은 하급관리로 종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지혜자이면서도 규범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인으로 살았으며 연암 자신도 그런 성향을 띤 인물이었다. 그는 『열하일기』에서 자신을 풍부한 개성의 소유자로 은연중에 형상화시켜 놓았는데, 도학자적 엄숙주의에서 탈피하여 대단히 소탈하고 인정미 있으며 풍류와 해학을 즐기는 자유방달한 인간성을 드러내었다.<sup>19)</sup> 자신을 포함한 이런 초야의 인재들이 등용되는 세상을 꿈꾸던 연암은 무능한 인물들의 득세에 그만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만다.

이완 대장 같은 사람은 명분을 내세우는 것에 능란하지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며 새 시대의 사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임금에게 진언하기를 두려워하는 비겁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세력들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연암은 이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싶을 만큼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다. 후대의 인재들을 향한 작가의 날카로운 훈계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여부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인재의 얼마나 잘 육성하고, 좋은 인재를 등용했는가 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생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재의 활용에 관한 교훈을 세상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

19) 김명호,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박지원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p.126.

## 2)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허생전>의 주제를 이루는 기본적인 덕목의 하나로 信義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경제활동의 근원적인 요소로서 신의를 강조한다. 신뢰가 사라지고 현실적 이익만 좇는 사회풍조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의식이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주인공은 생면부지의 부자로부터 거금을 빌리는데 여기에는 부자가 주인공의 인물됨을 알아채고 아무런 조건 없이 선뜻 일만 냥을 내 줌으로써 '信'에 기초한 일종의 계약이 성립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믿을 상업적 신용의 의미로 확대하고, 그에 바탕을 둔 국제 무역의 발달을 윤리적인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해석을 이끌어냈다.<sup>20)</sup> 올바른 경제활동은 신뢰에 입각한 질서가 필요하고 해외 교역에 있어서도 그것은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의 발로였다.

경제적 신의는 사회적 시대정신으로 발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사회에 대한 신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내다본다. <허생전>은 사회가 불안하고 도둑이 창궐하는 원인이 봉건적 토지소유 제도의 모순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주인공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이상향을 건설하려 한다. 그곳으로 가게 될 대상은 농토를 잃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둑이 된 무리들이었다. 그 무리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학문도 권세도 무력도 아니고, 오직 먹고 살게 해주는 경제적 안정뿐이었다. 이에 도둑들은 순화되어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향한다. 변산반도를 떠나 마카오(沙門)와 나가사키를 잇는 가상의 섬에서 주인공은 이상향을 건설하는 시험을 한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섬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 현실 사회로 복귀하고 만다.

내가 처음 자네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온 후 먼저 살림살이부터 풍족하게

20)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94.

만든 뒤에 따로 글자도 만들고 제도도 장만할 작정을 했더니, 땅은 작고 또 내 덕이 박한지라 나는 오늘로 떠나겠네.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수저를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이에게는 사양해서 먼저 먹게 하도록 가르치게.<sup>21)</sup>

이를 두고 이상적 사회 건설 사업이 실패로 끝났는가 하는 논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해야 할 문제는 주인공이 사회적 개혁의 방식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의 구성과 조직은 크고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개조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 사회로 가는 길은 ‘先富後教’ 곧 경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념이 제시되었다.<sup>22)</sup> 교육은 문자, 의관, 도덕 등을 항목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자칫 삶에 커다란 화근을 주는 문명의 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인공은 화근을 끊기 위해 글 이는 자들을 모두 배에 태워 섬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고심 끝에 얻은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지식인으로서 지식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을 동반하고 있다.<sup>23)</sup> 현대인들이 국민총생산이나 정치와 교육의 선진화로써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데 비해, 당시 지식인들의 정신은 시대를 앞서 반성적 인식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명사회가 행복을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허생전>의 예언은 그 후로부터 이백여 년 동안의 변화된 사회에 작용하고 있다. <허생전>이 기록될 무렵 서구사회에서는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 인간의 자유가 고양되었고, 과학적으로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한 공업 발달과 함께 획기적인

21) 吾始與汝等入此島 先富之 然後別造文字 剗製衣冠 地小德薄 吾今去矣 兒生執匙 教以右手 一日之長 讓之先食. 『熱河日記』 <玉匣夜話>.

22)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명문화사, 1969, p.340.

23) 김중철, 『옥갑야화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p.156.

교통 혁명이 예고되었다. 비야호로 근대 문명사회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업문명을 앞세운 서구의 힘이 동아시아 지역을 덮치기 시작했을 때 한반도는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격렬한 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으며 결국 일본에 강점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허생전>이 세상에 알려지고 백여 년이 지난 후 우리 민족은 문명과 행복의 배치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고뇌를 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젊은 지식인이었던 국어학자 金允經이 쓴 글 「문명과 행복의 배치를 논하여 인격혁명을 주창함」은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강점기 시대는 <허생전>의 발표 시기와 현재의 중간쯤 되는 때로서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 글은 조선사회가 많은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였으나 남에게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자격이 없으며, 노력을 통해 전 인류의 공존공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 논리를 들어보자.

이무리文明이 極度로發達된다하더라도 人格에 一大革命이잇기前에는 文明과 幸福은 反比例하리라고 卽다시말하면 文明과苦痛은 正比例되리라 고斷言합니다 過去가그러하였고 現在가그러하니 未來가그러할것이외다 그러한즉人類의幸福은 科學의應用이나 發明이늘어감에잇지아니하고 그主體인人格의革命에잇스며또한幸福은 무슨制度의如何에보다 人格의改造에잇는것이외다 醫師가 患者의病을診斷할때에 이藥쓰고 저藥쓰다가 다뎛지아니 하면 根本的으로手術하는모양으로 過去社會에서는 여러가지神奇한妙藥인 여러가지革命을하어보았습니다 또한神奇한效果가만났습니다 그重大한것만 歷史上에서들더라도 政治上으로千七百八十九年の佛蘭西大革命이잇섯고 經濟上으로千九百十七年の露西亞大革命이잇섯습니다 그리하여前者는 全世界로橫行하면서 모든專制政治를打破하고 民主共和政治를 樹立하면서 政治的으로 各國民을解放하였고 또解放하러하며 後者는經濟的으로 解放

하려고 全世界를橫行하러합니다 그러한즉 이두革命은 過去歷史上 가장重大한事實이라고아니불수가업습니다 그러나政治的이고 經濟的임을勿論하고 아무리그制度가 理想的으로組織되였다할지라도 그制度를 運用하는者是 神이아니요 사람인以上에는 그사람의人格性이 如前不完全한것인대로있고서는 그야말로 ‘靑襟에 개똥싼格’이되고말것이외다<sup>24)</sup>

비록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개조가 없다면 그것은 행복을 불러오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류의 역사에 정치 경제적으로 묘약이 될 혁명들이 있었지만 인간이 그 제도를 인격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망쳐놓는 결과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문명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지식인의 신의적 태도라는 점에서 <허생전>의 작가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개조된 인격을 <허생전>에서 사용한 용어로 바꾼다면 ‘德’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자신이 시도하려 하는 이상향의 조직과 구성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붙는 법이거든! 덕이 없음을 걱정할 일이지 사람 없는 걱정이야 할 것 없네!”<sup>25)</sup>라고 말한다. 덕에 의하여 행해지는 정치가 연암이 꿈꾸었던 이상국가의 정치였다.<sup>26)</sup>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지도층의 인격 개조와 덕성 함양으로 온 백성이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이상적 과제를 후대에 부여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현대에 들어 익숙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

24) 金允經, 『文明과 幸福의 背馳를 論하여 人格革命을 主唱함』, 『眞生』 1, 기독교청년회 려회 조선연합회, 1925, p.16.

25) 德者 人所歸也 尙恐不德 何患無人. 『熱河日記』 <玉匣夜話>.

26) 장충렬, 『박지원의 허생전 연구』, 『목원어문학』 8,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p.197.

의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신의 및 도덕성을 요구하는 단어로써 그들이 먼저 자기희생과 병역의무 이행, 기부활동 등을 손수 실천하여 사회통합에 앞장선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덕목을 함축하고 있다. 문명사회는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숭선수범을 바탕으로 삼아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층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참된 행복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허생전>의 이상향 시험은 문명과 행복의 배치를 예견한 작가 연암이 사대부 출신인 자신의 인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며, 오늘의 시대에 이르러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승화되고 있다 하겠다.

### 3)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허생전>은 17세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제화의 실현이라는 소재를 갖고 있다. 국제화란 한 나라가 이웃의 여러 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허생전>의 국제화는 이런 사전적인 뜻을 뛰어넘어 국가 간의 진보적 결속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조선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나라들과 교류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두 외국에 의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참담한 일들을 당함으로써 신뢰에 금이 가고 복수심만 쌓이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생전>의 주인공은 일본과 대규모의 무역을 하고, 청나라를 대상으로 유학과 상업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머리나 의복 모양까지 실용적인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배를 타고 지금의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향해 나아가 교류를 트는 노력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작품 속에 일찍이 실현된 <허생전>의 국제화 개념은 현대의 다원적 전지구화를 선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허생전>은 진보세력의 국제적 결속이며 동아시아의 새로

운 질서를 전망하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sup>27)</sup> 아무리 고통스런 과거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를 외면한 채 홀로 살아갈 수는 없다. <허생전>이 시대를 앞당겨 제시한 것은 동아시아 차원의 결속을 전제로 한 국제화의 실현이었다.

그 해에 3년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는 남은 곡식을 몽땅 배에 실어 장기로 가서 팔았다. 장기란 땅은 일본에 딸린 고을로서 호수가 31만인데, 때마침 큰 흉년이 들었던 터에 이 곡식을 풀어서 은 백만 냥을 얻었다.<sup>28)</sup>

위에 인용한 대목은 허생이 주도하여 개척한 섬에서 수확한 곡식을 일본에 팔아 큰 이익을 남겼다는 내용이다. 일본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상당기간 동안 규슈(九州) 지방을 중심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활발히 펼쳤다. 17세기 중엽부터 약 이백여 년에 걸쳐 전면적인 쇄국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조선과 중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과는 제한적인 교역을 꾸준히 유지했다. <허생전>에서는 규슈 지역의 무역항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나가사키(長崎)를 거점으로 삼아 국제무역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관한 것은 더욱 구체적인 방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기회에 옛날 당나라, 원나라 때 모양으로 조선의 자제들을 보내어 유학시키고, 벼슬하게 하고, 상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청한다면 조선이 자기들과 친해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요. 이렇게 되면 국내의 청년 자제들을 뽑아 머리를 깎고 되복을 입히고, 선비들은 과거를 보이고, 평민들은 강남 지방까지 멀리 장사를 나가도록 하여, 그 나라의 허실을 엿보고 지방의

27) 박지원, 김현조 역, 『열하일기』 3, 돌베개, 2009, p.219.

28) 留三年之儲 餘悉舟載往耀長崎島 長崎者 日本屬州 戶三十一萬 方大饑 遂賑之 獲銀百萬. 『熱河日記』 <玉匣夜話>.

호걸들과 결탁을 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요,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외다.<sup>29)</sup>

이것은 허생이 이완 대장에게 요구한 시사삼책의 마지막 방안이다. 이 속에는 중국을 향한 시대적 인식태도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중국 왕조의 주체가 무엇이든 간에 배척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통해 중국을 익혀 궁극적인 설욕을 하는 것이 옳은 방책이라고 하였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시대에 이성을 잃지 않고 미래의 공존 방식을 구상하는 지식인의 탁견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 긴밀한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광활한 대륙과 거대한 대양이 어우러져 미래세계의 중심부가 될 곳이므로 국제 사회에 끼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허생전>의 시대에 일본과 중국은 각각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평화공존에 일대 위기를 몰고 왔으나 피해자인 한국의 슬기로운 대응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과 중국을 침략하였으며, 종전 후에는 서로가 국가의 정체성을 달리하여 상호 견제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고,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의 깃발을 들었다. 그러나 과거사 인식문제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생전>이 제기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 확대 주장은 한국뿐 아니

29) 誠能請遣子弟入學遊宦 如唐元故事 商賈出入不禁 彼必喜其見親而許之 妙選國中之子弟 薙髮胡服 其君子往赴賓學 其小人遠商江南 覘其虛實 結其豪傑 天下可圖而國恥可雪. 『熱河日記』 <玉匣夜話>.

라 중국과 일본의 미래 전략과도 관련된다. 한국이 비록 두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 새로운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교역과 유학을 지속하려 했던 자세를 현대적 의미에서 수용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어가는 지금 한·중·일 삼국은 경제협력의 기반을 함께 다짐으로써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비단 문화적인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무대 뒤편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동아시아형 지역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실질적 사항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면들을 포함한다.<sup>30)</sup>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생존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동아시아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제안하는 시도에 관한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나 삼국의 정상 회담이 계속 열리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현상은 이미 문학적으로 예고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허생전>은 이와 같이 미래의 국가사회공동체의 존립까지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4. 결론

<허생전>은 스케일이 대단히 큰 소설이다. 작품의 소재나 배경이 동아시아를 무대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정신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고, 지식인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 구체적인 풍자 대상도 어떤 인물이나 지배계층이 아니라 당대 사회구조 전체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sup>31)</sup>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시대정신은 미래의

30)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서문 참고.

우리 민족과 동아시아 사회에 거시적 도움을 제공할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허생전>의 시대정신은 작가 연암의 경험적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연암은 청나라 황제가 머물던 열하를 다녀오면서 자신이 이십여 년 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조선을 침략했던 청나라는 중화의 문물을 이어받아 현실적으로 건재한데,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민심도 안정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무능한 사대부들이 북벌만 입에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적 능력을 가진 인재의 등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였다. 이는 조선후기의 진보적 지식인들인 실학자들이 공통되게 지니고 있었던 시대정신으로 확대되어간다.

이 정신은 소설의 창작을 전후로 하여 잠깐 있다 사라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에 적용될 문제들을 제기하여 해법을 밝혀주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가 간의 질서와 유대에 관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구실까지 담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허생전>이 현대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먼저, 인재의 육성과 등용이다. 천연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재가 많아 현자의 나라로 불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인재의 발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생전>에서 작가가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세상을 움직이고 나라를 구할 만한 인재들이 초야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도구는 곧 인적자원이라는 점을 깨닫고 학연과 지연을 떠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명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문명과 행복이 배치되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도층의 자기반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구현을 통해 비로소

31)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8, p.134.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이다. 국제화를 외면할 수 없는 시대에 특히 역사적 공동운명체로 결속되어 있는 나라가 한·중·일 삼국이다. <허생전>은 고통의 와중에서도 삼국이 교육과 경제활동을 공유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가 솔선하여 이 구도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미래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지원, 『열하일기』, 리상호 역, 보리, 2004.  
——, 『열하일기』, 김철조 역, 돌베개, 2009.  
박종채, 『과정록』, 김윤조 역주, 태학사, 1997.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연행록의 전통과 열하일기』, 『박지원문학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수중, 『고전소설과 문학정신』, 태학사, 2007.  
김영동, 『연암 박지원의 소설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김윤경, 『문명과 행복의 배치를 논하여 인격혁명을 주창함』, 『진생』 1,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1925.
- 김일렬, 『고전소설신론』, 새문사, 2003.  
김중철, 『옥갑야화 이해의 시각』, 『선청어문』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0.  
설성경·박태상,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8.
- 이우성, 『초기 실학과 성리학과의 관계』, 『동방학지』 1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 이재수, 『한국소설연구』, 선문문화사, 1969.
- 장충렬, 『박지원의 허생전 연구』, 『목원어문학』 8,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정출현 외 3인, 『고전문학사의 라이벌』, 한겨레, 2006.
- 정환국, 『허생고사와 복벌인식의 추이』,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 차용주, 『허생전의 모순과 한계성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집』 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2.
- 최소자, 『18세기말 동서양 지식인의 중국인식비교』, 『동양사학연구』 59, 동양사학회, 1997.
-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연구원, 2008.

**Abstract**

A Study on Subject of the Contemporary Application and Spirit of  
the times in <Heosaengjeon>

Kim, Su-Jung

Yeonam Park Ji-won narrated <Heosaengjeon> for the first time in 1780, going to Yeolha and back where the Emperor of Qing Dynasty stayed, and included it in 『Yeolhailgi』, his travel essay after he made it a novel. The motivation was the thought that we should train talent and engage active trade based on pragmatism because the presence of Qing Dynasty is pronounced. It was common spirit of the times that Silhak scholars pursue including Yeonam.

This spirit is worth being applied to modern times that two-hundred years have passed since that period. First, it's raise and engage of talent. The reason why China was afraid of us was an abundance of human resources. The engagement of talent who have the bandwidth to accept the trend of literature of a new era will be the key to the right realization of future societies.

Second, it's th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a civilized society. <Heosaengjeon> is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that civilization is contrary to happiness. It contains the will that we should form a happy society emphasiz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morality of intellectuals. The realization of spirit of modern 'noblesse oblige' has relevance to this.

Third, it'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ommunity of East Asia. The prophetic idea that Korea, China and Japan, three countries should welcome the future through community solidarity is in it. Thus, <Heosaengjeon> is a literary work that has futuristic value in the way that it emphasized that Korea would be the center of three countries on its own initiative.

Key words : Heosaengjeon, Yeolhailgi, spirit of the times, engagement of talent, sense of responsibility, community of East Asia

김수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전화번호 : 062-230-6516

전자우편 : sjdkim@chosun.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13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